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DECEMBER
2025 12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약속의 땅에 주신 축복 [신명기]



감사하는 습관의 힘



시편 136편은 주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예배 시에 사용되었던 예배 찬양시로 총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구성이 좀 독특한데, 예배 때 성가를 지휘했던 아삽 자손이 전반부 “감사하라”를 선창하면 회중이 후렴구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화답하는 형식의 당시의 대중 예배 찬양이었습니다. 무려 26번이나 회중이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반복할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솟아납니다. 이런 감사 찬양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모든 성도들은 감사 찬양을 습관화하는 훈련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이 툭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감사의 언어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감사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할 때 더 큰 능력을 발합니다.

시편 136편에서 중요한 것은 회중의 감사 찬양을 리드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절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달라집니다. “모든 산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언급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디테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지도자가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을 상세하게 찾아서 선포해 주고, 백성들이 따라오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며, 마귀가 떠나고, 기도들이 응답하고, 능력과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리액션입니다. 은혜를 받는 순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격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작은 선물에도 격하게 리액션을 해 주면 부모는 기뻐서 자꾸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기가 되어 리액션이 시큰해지면 부모도 재미가 없어서 뭘 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감사 찬양의 리액션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이 더 자주 은혜를 베풀십니다.

감사 찬양의 습관을 쌓아 놓으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십 대 소년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팔십 노인이 되어서도 평생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기도 드리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그 때문에 그를 시기한 적들의 함정에 빠져 사자 굴에 던져지는 고난도 겪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눈동자처럼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감사가 가장 큰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 찬양을 습관화하는 성도들에게 뜨겁게 임재해 주시고, 무서운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제 약 7개월 뒤면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될 우리 교회 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감사 찬양을 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 승리할 것입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DECEMBER
2025 12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약속의 땅에 주신 축복 [신명기]



2025.
12

SAEROUN

QT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0	1	2	3 수요 커피브레이크 개강
7	8 세례식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	9	10
14	15	16	17
21	22 정기제작회	23	24
28	29	30	31 송구영신 예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	5	6
11	12	13
18	19	20 1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5 성탄절 성탄절 예배	26	27 남성사역 모닝글로리 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신정	2	3

2025.
12

1	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다	삼상 17:41-54
2	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 7:17-26
3	수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광야학교	신 8:1-10
4	목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신 8:11-20
5	금	공로가 아닌, 약속의 은혜로	신 9:1-8
6	토	언약을 깨뜨린 백성, 중보하는 지도자	신 9:9-21
7	주일	겸손과 들릴라	삿 16:1-22
8	월	지혜로운 자의 어리석은 사랑	왕상 11:1-11
9	화	멸망 앞에서 드린 중보기도	신 9:22-29
10	수	다시 주어진 언약의 돌판	신 10:1-11
11	목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신 10:12-22
12	금	약속의 땅에 주신 축복	신 11:1-12
13	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비밀	신 11:13-21
14	주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삿 16:23-31
15	월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시 51:1-12
16	화	너희가 삼가 행하면 복이 되리라	신 11:22-32
17	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신 12:1-7
18	목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 12:8-19
19	금	하나님의 규례를 넘지 말라	신 12:20-32
20	토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	신 13:1-11
21	주일	가인 vs 이벨	창 4:1-12
22	월	형식이 아닌 마음을 원하신다	말 1:6-14
23	화	하나님을 배반한 성읍의 결말	신 13:12-18
24	수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	신 14:1-21
25	목	[성탄절] 요셉의 순종	마 1:18-25
26	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십일조의 의미	신 14:22-29
27	토	이웃의 빚을 면제해주는 안식년	신 15:1-11
28	주일	아브라함 vs 롯	창 13:1-18
29	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 6:19-34
30	화	해방의 은혜와 감사의 삶	신 15:12-23
31	수	출애굽을 기억하라	신 16:1-8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 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자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례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빙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01

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다

삼상 17:41-54

- 41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 42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뛰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 43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 44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 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 48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 49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 50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 51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 52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다
- 53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 54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02

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 7:17-26

17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You may say to yourselves, "These nations are stronger than we are. How can we drive them out?"

18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But do not be afraid of them; remember well what the LORD your God did to Pharaoh and to all Egypt.

1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You saw with your own eyes the great trials, the signs and wonders, the mighty hand and outstretched arm, with which the LORD your God brought you out. The LORD your God will do the same to all the peoples you now fear.

2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Moreover, the LORD your God will send the hornet among them until even the survivors who hide from you have perished.

21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임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Do not be terrified by them, for the LORD your God, who is among you, is a great and awesome God.

2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멀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The LORD your God will drive out those nations before you, little by little. You will not be allowed to eliminate them all at once, or the wild animals will multiply around you.

2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But the LORD your God will deliver them over to you, throwing them into great confusion until they are destroyed.

24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He will give their kings into your hand, and you will wipe out their names from under heaven. No one will be able to stand up against you; you will destroy them.

25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옮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The images of their gods you are to burn in the fire. Do not covet the silver and gold on them, and do not take it for yourselves, or you will be ensnared by it, for it is detestable to the LORD your God.

26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 당할 것임이니라

Do not bring a detestable thing into your house or you, like it, will be set apart for destruction. Regard it as vile and utterly detest it, for it is set apart for destructio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3

수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광야학교

신 8:1-10

- 1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Be careful to follow every command I am giving you today, so that you may live and increase and may enter and possess the land the LORD promised on oath to your ancestors.

-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Remember how the LORD your God led you all the way in the wilderness these forty years, to humble and test you in order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whether or not you would keep his commands.

- 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He humbled you, causing you to hunger and then feeding you with manna, which neither you nor your ancestors had known, to teach you that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 4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Your clothes did not wear out and your feet did not swell during these forty years.

- 5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Know then in your heart that as a man disciplines his son, so the LORD your God disciplines you.

- 6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Observe the commands of the LORD your God, walking in obedience to him and revering him.

-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For the LORD your God is bringing you into a good land—a land with brooks, streams, and deep springs gushing out into the valleys and hills;

- 8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a land with wheat and barley, vines and fig trees, pomegranates, olive oil and honey;

- 9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a land where bread will not be scarce and you will lack nothing; a land where the rocks are iron and you can dig copper out of the hills.

- 10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 하리라**

When you have eaten and are satisfied, praise the LORD your God for the good land he has given you.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4

목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신 8:11-20

11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Be careful that you do not forget the LORD your God, failing to observe his commands, his laws and his decrees that I am giving you this day.

12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Otherwise, when you eat and are satisfied, when you build fine houses and settle down,

13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and when your herds and flocks grow large and your silver and gold increase and all you have is multiplied,

14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then your heart will become proud and you will forget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15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괘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He led you through the vast and dreadful wilderness, that thirsty and waterless land, with its venomous snakes and scorpions. He brought you water out of hard rock.

약속의 땅에 주신 축복 [신명기]

16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괘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He gave you manna to eat in the wilderness, something your ancestors had never known, to humble and test you so that in the end it might go well with you.

17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You may say to yourself, "My power and the strength of my hands have produced this wealth for me."

18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But remember the LORD your God, for it is he who gives you the ability to produce wealth, and so confirms his covenant, which he swore to your ancestors, as it is today.

19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If you ever forget the LORD your God and follow other gods and worship and bow down to them, I testify against you today that you will surely be destroyed.

20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Like the nations the LORD destroyed before you, so you will be destroyed for not obeying the LORD your Go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5

금

공로가 아닌,
약속의 은혜로

신 9:1-8

- 1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달았으며

Hear, Israel: You are now about to cross the Jordan to go in and dispossess nations greater and stronger than you, with large cities that have walls up to the sky.

- 2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으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The people are strong and tall—Anakites! You know about them and have heard it said: "Who can stand up against the Anakites?"

- 3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But be assured today that the LORD your God is the one who goes across ahead of you like a devouring fire. He will destroy them; he will subdue them before you. And you will drive them out and annihilate them quickly, as the LORD has promised you.

- 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After the LORD your God has driven them out before you, do not say to yourself, "The LORD has brought me here to take possession of this land because of my righteousness." No, it is on account of the wickedness of these nations that the LORD is going to drive them out before you.

약속의 땅에 주신 축복 [신명기]

- 5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It is not because of your righteousness or your integrity that you are going in to take possession of their land; but on account of the wickedness of these nations, the LORD your God will drive them out before you, to accomplish what he swore to your fathers, to Abraham, Isaac and Jacob.

- 6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Understand, then, that it is not because of your righteousness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this good land to possess, for you are a stiff-necked people.

- 7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 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Remember this and never forget how you aroused the anger of the LORD your God in the wilderness. From the day you left Egypt until you arrived here, you have been rebellious against the LORD.

- 8 호렙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At Horeb you aroused the LORD's wrath so that he was angry enough to destroy you.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6

토

언약을 깨뜨린 백성,
중보하는 지도자

신 9:9-21

9 그 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사십 주 사십 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10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11 사십 주 사십 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12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13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4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15 내가 돌아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16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17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18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사십 주 사십 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19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시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20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시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 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21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 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7

주일

삼손과 들릴라

삿 16:1-22

- 1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One day Samson went to Gaza, where he saw a prostitute. He went in to spend the night with her.

- 2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The people of Gaza were told, "Samson is here!" So they surrounded the place and lay in wait for him all night at the city gate. They made no move during the night, saying, "At dawn we'll kill him."

- 3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But Samson lay there only until the middle of the night. Then he got up and took hold of the doors of the city gate, together with the two posts, and tore them loose, bar and all. He lifted them to his shoulders and carried them to the top of the hill that faces Hebron.

- 4 이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Some time later, he fell in love with a woman in the Valley of Sorek whose name was Delilah.

약속의 땅에 주신 축복 [신명기]

- 5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끌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은 천백 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went to her and said, "See if you can lure him into showing you the secret of his great strength and how we can overpower him so we may tie him up and subdue him. Each one of us will give you eleven hundred shekels of silver."

- 6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So Delilah said to Samson, "Tell me the secret of your great strength and how you can be tied up and subdued."

- 7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Samson answered her, "If anyone ties me with seven fresh bowstrings that have not been dried, I'll become as weak as any other man."

- 8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Then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brought her seven fresh bowstrings that had not been dried, and she tied him with them.

9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With men hidden in the room, she called to him, "Samson, the Philistines are upon you!" But he snapped the bowstrings as easily as a piece of string snaps when it comes close to a flame. So the secret of his strength was not discovered.

10 들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겠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Then Delilah said to Samson, "You have made a fool of me; you lied to me. Come now, tell me how you can be tied."

11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He said, "If anyone ties me securely with new ropes that have never been used, I'll become as weak as any other man."

12 들킬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의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 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So Delilah took new ropes and tied him with them. Then, with men hidden in the room, she called to him, "Samson, the Philistines are upon you!" But he snapped the ropes off his arms as if they were threads.

13 들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겠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Delilah then said to Samson, "All this time you have been making a fool of me and lying to me. Tell me how you can be tied." He replied, "If you weave the seven braids of my head into the fabric on the loom and tighten it with the pin, I'll become as weak as any other man." So while he was sleeping, Delilah took the seven braids of his head, wove them into the fabric

14 들킬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and tightened it with the pin. Again she called to him, "Samson, the Philistines are upon you!" He awoke from his sleep and pulled up the pin and the loom, with the fabric.

15 들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Then she said to him, "How can you say, 'I love you,' when you won't confide in me? This is the third time you have made a fool of me and haven't told me the secret of your great strength."

16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With such nagging she prodded him day after day until he was sick to death of it.

17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So he told her everything. “No razor has ever been used on my head,” he said, “because I have been a Nazirite dedicated to God from my mother’s womb. If my head were shaved, my strength would leave me, and I would become as weak as any other man.”

18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 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When Delilah saw that he had told her everything, she sent word to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Come back once more; he has told me everything.” So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returned with the silver in their hands.

19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After putting him to sleep on her lap, she called for someone to shave off the seven braids of his hair, and so began to subdue him. And his strength left him.

20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Then she called, “Samson, the Philistines are upon you!” He awoke from his sleep and thought, “I’ll go out as before and shake myself free.” But he did not know that the LORD had left him.

21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 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Then the Philistines seized him, gouged out his eyes and took him down to Gaza. Binding him with bronze shackles, they set him to grinding grain in the prison.

22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But the hair on his head began to grow again after it had been shaved.

08

월

지혜로운 자의 어리석은 사랑

왕상 11:1-11

- 1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헛 여인이라
- 2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 3 왕은 후궁이 칠백 명이요 첨이 삼백 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 4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 5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 6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 7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 8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 9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 10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 11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09

화

멸망 앞에서 드린 중보기도

신 9:22-29

22 너희가 다베라와 맷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
서도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느니라
You also made the LORD angry at Taberah, at Massah
and at Kibroth Hattaavah.

23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
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
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
나니

And when the LORD sent you out from Kadesh Barnea, he said, "Go up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I have given you." But you rebelled against the command of the LORD your God. You did not trust him or obey him.

24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
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You have been rebellious against the LORD ever
since I have known you.

25 그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
므로 내가 여전히 사십 주 사십 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I lay prostrate before the LORD those forty days and
forty nights because the LORD had said he would
destroy you.

26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
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
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
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I prayed to the LORD and said, "Sovereign LORD, do
not destroy your people, your own inheritance that
you redeemed by your great power and brought out
of Egypt with a mighty hand.

27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Remember your servants Abraham, Isaac and Jacob.
Overlook the stubbornness of this people, their
wickedness and their sin.

28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
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일 만한 능력도 없
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
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Otherwise, the country from which you brought
us will say, 'Because the LORD was not able to take
them into the land he had promised them, and
because he hated them, he brought them out to put
them to death in the wilderness.'

29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
였노라
But they are your people, your inheritance that
you brought out by your great power and your
outstretched ar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0

수

다시 주어진 언약의 돌판

신 10:1-11

- 1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 2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 3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 4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 5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 6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 7 또 거리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옷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 8 그 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 궤를 메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 9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 10 내가 처음과 같이 사십 주 사십 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 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 1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1

목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신 10:12-22

12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And now, Israel, what does the LORD your God ask of you but to fear the LORD your God, to walk in obedience to him, to love him, to ser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13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and to observe the LORD's commands and decrees that I am giving you today for your own good?

14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To the LORD your God belong the heavens, even the highest heavens, the earth and everything in it.

15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Yet the LORD set his affection on your ancestors and loved them, and he chose you, their descendants, above all the nations—as it is today.

16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Circumcise your hearts, therefore, and do not be stiff-necked any longer.

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For the LORD your God is God of gods and Lord of lords, the great God, mighty and awesome, who shows no partiality and accepts no bribes.

18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He defends the cause of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and loves the foreigner residing among you, giving them food and clothing.

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And you are to love those who are foreigners, for you yourselves were foreigners in Egypt.

20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Fear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Hold fast to him and take your oaths in his name.

21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He is the one you praise; he is your God, who performed for you those great and awesome wonders you saw with your own eyes.

22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칠십 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 같이 많이 하셨느니라

Your ancestors who went down into Egypt were seventy in all, and now the LORD your God has made you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2

금

약속의 땅에 주신 축복

신 11:1-12

- 1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 2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 3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 4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흥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 5 또 너희가 이 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 6 르우벤 자손 엘리암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 7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 8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 9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 10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텁과 같이 하였거니와
- 11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 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3

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비밀

신 11:13-21

13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So if you faithfully obey the commands I am giving you today—to love the LORD your God and to serve hi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14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then I will send rain on your land in its season, both autumn and spring rains, so that you may gather in your grain, new wine and olive oil.

15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I will provide grass in the fields for your cattle, and you will eat and be satisfied.

16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Be careful, or you will be enticed to turn away and worship other gods and bow down to them.

17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Then the LORD's anger will burn against you, and he will shut up the heavens so that it will not rain and the ground will yield no produce, and you will soon perish from the good land the LORD is giving you.

18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Fix these words of mine in your hearts and minds; tie them as symbols on your hands and bind them on your foreheads.

19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Teach them to your children, talking about them when you sit at home and when you walk along the roa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get up.

20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Write them on the doorframes of your houses and on your gates,

21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so that your days and the days of your children may be many in the land the LORD swore to give your ancestors, as many as the days that the heavens are above the earth.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4

주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삿 16:23-31

23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Now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assembled to offer a great sacrifice to Dagon their god and to celebrate, saying, “Our god has delivered Samson, our enemy, into our hands.”

24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 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When the people saw him, they praised their god, saying, “Our god has delivered our enemy into our hands, the one who laid waste our land and multiplied our slain.”

25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While they were in high spirits, they shouted, “Bring out Samson to entertain us.” So they called Samson out of the prison, and he performed for them. When they stood him among the pillars,

26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Samson said to the servant who held his hand, “Put me where I can feel the pillars that support the temple, so that I may lean against them.”

27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Now the temple was crowded with men and women; all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were there, and on the roof were about three thousand men and women watching Samson perform.

28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 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Then Samson prayed to the LORD, “Sovereign LORD, remember me. Please, God, strengthen me just once more, and let me with one blow get revenge on the Philistines for my two eyes.”

29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 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Then Samson reached toward the two central pillars on which the temple stood. Bracing himself against them, his right hand on the one and his left hand on the other,

30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 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Samson said, "Let me die with the Philistines!" Then he pushed with all his might, and down came the temple on the rulers and all the people in it. Thus he killed many more when he died than while he lived.

31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 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 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더라

Then his brothers and his father's whole family went down to get him. They brought him back and buried him between Zorah and Eshtaol in the tomb of Manoah his father. He had led Israel twenty years.

15

월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시 51:1-12

- 1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Have mercy on me, O God, according to your unfailing love; according to your great compassion blot out my transgressions.

- 2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Wash away all my iniquity and cleanse me from my sin.

- 3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For I know my transgressions, and my sin is always before me.

- 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Against you, you only, have I sinned and done what is evil in your sight; so you are right in your verdict and justified when you judge.

- 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Surely I was sinful at birth, sinful from the time my mother conceived me.

- 6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Yet you desired faithfulness even in the womb; you taught me wisdom in that secret place.

- 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Cleanse me with hyssop, and I will be clean; wash me, and I will be whiter than snow.

- 8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Let me hear joy and gladness; let the bones you have crushed rejoice.

- 9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Hide your face from my sins and blot out all my iniquity.

- 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Create in me a pure heart, O God, and renew a steadfast spirit within me.

-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Do not cast me from your presence or take your Holy Spirit from me.

-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Restore to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and grant me a willing spirit, to sustain me.

16

화

너희가 삼가 행하면 복이 되리라

신 11:22-32

22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23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24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네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25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26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아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2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돌아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30 이 두 산은 요단 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레 상수리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31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32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7

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신 12:1-7

- 1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These are the decrees and laws you must be careful to follow in the land that the LORD, the God of your ancestors, has given you to possess—as long as you live in the land.

- 2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Destroy completely all the places on the high mountains, on the hills and under every spreading tree, where the nations you are dispossessing worship their gods.

- 3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멀하라

Break down their altars, smash their sacred stones and burn their Asherah poles in the fire; cut down the idols of their gods and wipe out their names from those places.

- 4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You must not worship the LORD your God in their way.

- 5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But you are to seek the place the LORD your God will choose from among all your tribes to put his Name there for his dwelling. To that place you must go;

- 6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현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there bring your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your tithes and special gifts, what you have vowed to give and your freewill offerings, and the firstborn of your herds and flocks.

- 7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Ther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your God, you and your families shall eat and shall rejoice in everything you have put your hand to, because the LORD your God has blessed you.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8

목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 12:8-19

8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9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10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11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12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3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5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16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17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현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18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19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9

금

하나님의 규례를 넘지 말라

신 12:20-32

2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21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 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께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22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23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24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으라

25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26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27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28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2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30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31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3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0

토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

신 13:1-11

- 1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 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 2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 3 너는 그 선지자나 꿈 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 4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 5 그런 선지자나 꿈 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6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끼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7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 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8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9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뜻 백성이 손을 대라

10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끼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죽이라

11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1

주일

가인 vs 아벨

창 4:1-12

- 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Adam made love to his wife Eve, and she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Cain. She said, "With the help of the LORD I have brought forth a man."

- 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Later she gave birth to his brother Abel. Now Abel kept flocks, and Cain worked the soil.

- 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In the course of time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as an offering to the LORD.

- 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And Abel also brought an offering—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The LORD looked with favor on Abel and his offering,

- 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but on Cain and his offering he did not look with favor. So Cain was very angry, and his face was downcast.

- 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됩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됩이나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y are you angry? Why is your face downcast?

약속의 땅에 주신 축복 [신명기]

- 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낮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But if you do not do what is right,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rule over it."

- 8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Now Cain said to his brother Abel, "Let's go out to the field." While they were in the field, Cain attacked his brother Abel and killed him.

- 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ere is your brother Abel?" "I don't know," he replied. "Am I my brother's keeper?"

- 10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The LORD said, "What have you done? Listen! Your brother's blood cries out to me from the ground.

- 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Now you are under a curse and driven from the ground, which opened its mouth to receive your brother's blood from your hand.

- 12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When you work the ground, it will no longer yield its crops for you. You will be a restless wanderer on the earth."

22

월

형식이 아닌 마음을 원하신다

말 1:6-14

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 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9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인들 받겠느냐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12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13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14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

화

하나님을 배반한 성읍의 결말

신 13:12-18

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If you hear it said about one of the towns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to live in

13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that troublemakers have arisen among you and have led the people of their town astray, saying, "Let us go and worship other gods" (gods you have not known),

14 너는 자세히 물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then you must inquire, probe and investigate it thoroughly. And if it is true and it has been proved that this detestable thing has been done among you,

15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you must certainly put to the sword all who live in that town. You must destroy it completely, both its people and its livestock.

16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 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You are to gather all the plunder of the town into the middle of the public square and completely burn the town and all its plunder as a whole burnt offering to the LORD your God. That town is to remain a ruin forever, never to be rebuilt,

17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궁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and none of the condemned things are to be found in your hands. Then the LORD will turn from his fierce anger, will show you mercy, and will have compassion on you. He will increase your numbers, as he promised on oath to your ancestors—

18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because you obey the LORD your God by keeping all his commands that I am giving you today and doing what is right in his eye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4

수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

신 14:1-21

- 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 2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 3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 4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 5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불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 6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 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인니라
- 7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 8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인니라
- 9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 10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 11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 12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 13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 14 까마귀 종류와
- 15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 16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 17 당아와 올등과 노자와
- 18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 19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 20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 21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5

목

요셉의 순종

마 1:18-25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This is how the birth of Jesus Christ came about: His mother Mary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Joseph, but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through the Holy Spirit.

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Because Joseph her husband was a righteous man and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he had in mind to divorce her quietly.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동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임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

23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Immanuel"--which means, "God with us."

24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When Joseph woke up, he did what the angel of the Lord had commanded him and took Mary home as his wife.

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But he had no union with her until she gave birth to a son. And he gave him the name Jesus

26

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십일조의 의미

신 14:22-29

22 너는 마땅히 매 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Be sure to set aside a tenth of all that your fields produce each year.

23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Eat the tithe of your grain, new wine and olive oil, and the firstborn of your herds and flocks in the presence of the LORD your God at the place he will choose as a dwelling for his Name, so that you may learn to revere the LORD your God always.

24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But if that place is too distant and you have been blessed by the LORD your God and cannot carry your tithe (because the place where the LORD will choose to put his Name is so far away),

25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then exchange your tithe for silver, and take the silver with you and go to the place the LORD your God will choose.

약속의 땅에 주신 축복 [신명기]

26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할 것이며

Use the silver to buy whatever you like: cattle, sheep, wine or other fermented drink, or anything you wish. Then you and your household shall eat ther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your God and rejoice.

27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봉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And do not neglect the Levites living in your towns, for they have no allotment or inheritance of their own.

28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At the end of every three years, bring all the tithes of that year's produce and store it in your towns,

29 너희 중에 봉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종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so that the Levites (who have no allotment or inheritance of their own) and the foreigners, the fatherless and the widows who live in your towns may come and eat and be satisfied, and so that the LORD your God may bless you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7

토

이웃의 빚을 면제해주는 안식년

신 15:1-11

1 매 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2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3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4-5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8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9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8

주일

아브라함 vs 롯

창 13:1-18

- 1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So Abram went up from Egypt to the Negev, with his wife and everything he had, and Lot went with him.

- 2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Abram had become very wealthy in livestock and in silver and gold.

- 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벤엘에 이르며 벤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From the Negev he went from place to place until he came to Bethel, to the place between Bethel and Ai where his tent had been earlier

- 4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and where he had first built an altar. There Abram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 5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Now Lot, who was moving about with Abram, also had flocks and herds and tents.

- 약속의 땅에 주신 축복 [신명기]

- 6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But the land could not support them while they stayed together, for their possessions were so great that they were not able to stay together.

- 7 그러므로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And quarreling arose between Abram's herders and Lot's. The Canaanites and Perizzites were also living in the land at that time.

- 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So Abram said to Lot, “Let's not have any quarreling between you and me, or between your herders and mine, for we are close relatives.

- 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がら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Is not the whole land before you? Let's part company. If you go to the left, I'll go to the right; if you go to the right, I'll go to the left.”

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Lot looked around and saw that the whole plain of the Jordan toward Zoar was well watered, like the garden of the LORD, like the land of Egypt. (This was before the LORD destroyed Sodom and Gomorrah.)

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So Lot chose for himself the whole plain of the Jordan and set out toward the east. The two men parted company: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Abram lived in the land of Canaan, while Lot lived among the cities of the plain and pitched his tents near Sodom.

13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Now the people of Sodom were wicked and were sinning greatly against the LORD.

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The LORD said to Abram after Lot had parted from him, “Look around from where you are, to the north and south, to the east and west.

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All the land that you see I will give to you and your offspring forever.

16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I will make your offspring like the dust of the earth, so that if anyone could count the dust, then your offspring could be counted.

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Go, walk through the length and breadth of the land, for I am giving it to you.”

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So Abram went to live near the great trees of Mamre at Hebron, where he pitched his tents. There he built an altar to the LORD.

29

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 6:19-34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
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
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
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
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
나 더하겠느니라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
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
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
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
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
하지 아니하느냐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
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
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
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
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
로움은 그 날로 족하느니라

30

화

해방의 은혜와 감사의 삶

신 15:12-23

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13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 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 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 지니라

15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16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 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17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18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삯의 배나 밭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9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20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21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22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 이요

23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31

수

출애굽을 기억하라

신 16:1-8

- 1 아빕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Observe the month of Aviv and celebrate the Passover of the LORD your God, because in the month of Aviv he brought you out of Egypt by night.

- 2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Sacrifice as the Passover to the LORD your God an animal from your flock or herd at the place the LORD will choose as a dwelling for his Name.

- 3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례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 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Do not eat it with bread made with yeast, but for seven days eat unleavened bread, the bread of affliction, because you left Egypt in haste—so that all the days of your life you may remember the time of your departure from Egypt.

- 4 그 이례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Let no yeast be found in your possession in all your land for seven days. Do not let any of the meat you sacrifice on the evening of the first day remain until morning.

- 5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You must not sacrifice the Passover in any town the LORD your God gives you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6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except in the place he will choose as a dwelling for his Name. There you must sacrifice the Passover in the evening, when the sun goes down, on the anniversary of your departure from Egypt.

-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Roast it and eat it at the place the LORD your God will choose. Then in the morning return to your tents.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8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For six days eat unleavened bread and on the seventh day hold an assembly to the LORD your God and do no work.

2025 송구영신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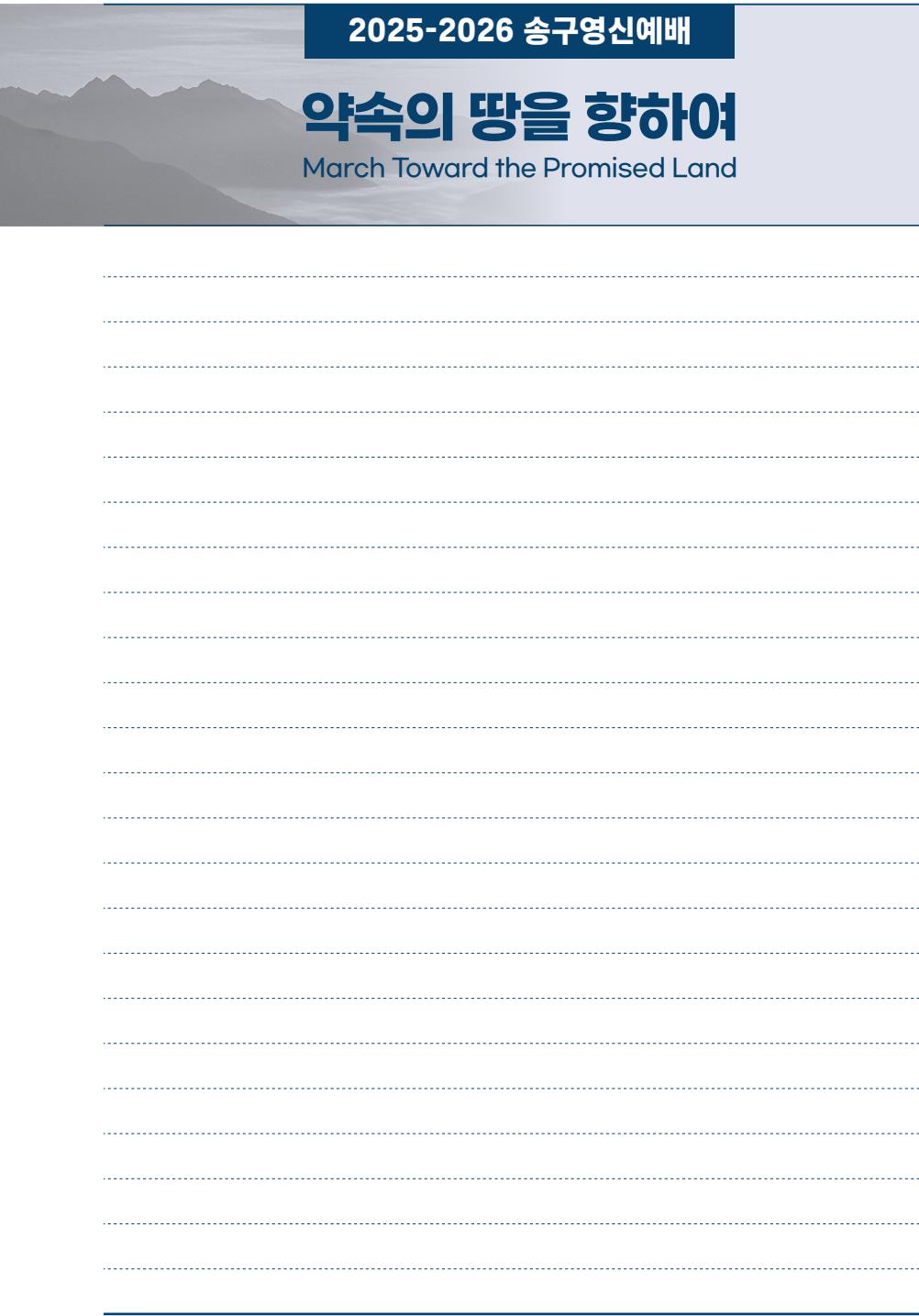
01

약속의 땅을 향하여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설교 | 한 흠 목사

일시 | 12월 31일(수) 오후 6시, 오후 8시 30분, 오후 11시

장소 | 새로운교회 본당



2025-2026 송구영신예배

약속의 땅을 향하여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을 향하여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개인기도제목 - 1주차



개인기도제목 - 2주차



개인기도제목 - 3주차



개인기도제목 - 4주차

2025.
12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 간증

02

2025 한·한 목사의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
주의 영광을 회복하라 : 예배와 중보기도
*일시: 10월 27일(월)-29일(수) *장소: 가평 필그림하우스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 간증

이동식 목사 (서곡우리교회)

최선을 다하여 철저히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시청각으로 보여준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준비부터가 예배이기에 철저히 준비하되 하나님의 관점으로 준비하고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인도자자, 설교자가 아닌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책에 “설교는 들리는 설교가 있고, 꽂히는 설교가 있으며, 변화시키는 설교가 있다, 들리는 설교는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다. 반면, 변화시키는 설교는 듣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불꽃을 되살리는 설교다.”라는 한 홍 목사님의 말과 글에 공감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로 나가야 함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아는 진리이지만,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여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장종환 목사 (무선중앙교회)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였던 그때, 담임목사 위임을 받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하였던 그 결심, 어느덧 그 모든 것은 희미해진 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마치 나 자신이 목자인 양 흉내 내며 걸어왔던 시간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순한 어린양으로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시며, 주님께

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고백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컨퍼런스 시간 중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고민들이 가시처럼 나를 짚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임재함을 사모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였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시지 않으셨던 십자가 위의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를 바라는가? 그리고 저를 사로잡았던 내 자존심, 내 욕심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선일 목사 (인천영천교회)

무엇보다 저녁예배 때마다 잠시 놓치고 있었던 본질들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새 수레와 같은 좋은 시스템과 체계가 있으면 된다고 다그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모습 안에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것에 더욱 예배와 기도가 쌓여야 하며,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절박감, 효율성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부흥은 피와 땀을 요구한다는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성과 땀을 쏟아야만 하나님의 임재로 강력한 부흥의 시즌을 경험하게 됨을 깨달은 바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 정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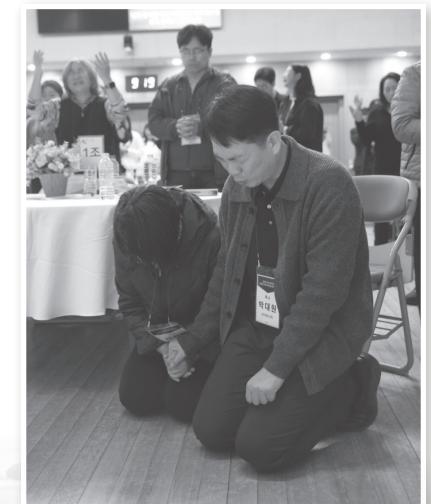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 간증

박정원 목사 (세움교회)

이제 저는 다시 일어섭니다. 지쳐 있던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단순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라.’ 이제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서서, 처음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렵니다. “잘 왔다.” 그 한마디로 시작된 이 은혜의 여정이, 앞으로의 제 목회와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불씨가 되길 소망합니다.

최영남 목사 (제주서귀포강변교회)

한 홍 목사님의 느헤미야 리더십을 들으면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기도자, 내가 되자. 느헤미야가 본을 보였던 것처럼, 내가 먼저 본을 보이자.’ 내가 진실한 예배자, 성실한 기도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 교회 성벽을 재건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시 사역지로 돌아온 나는 새벽 예배 1시간 기도와 더불어 하루 1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유아실로 올라가 필그림하우스에서 산 기도의자에 무릎을 꿇고 본당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감격하여 찬양하며, 간절한 부르짖음에 눈물을 담아 주님의 보좌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김미경 사모 (부산시민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듣, 회중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모이기 이전에 어린양으로서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울 자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신실하게 따름이야말로 사역의 본질임을 깨닫고, 모든 흐름의 주도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신실한 follower가 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할 때 성도들도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과 그 발걸음만이 가장 정확한 나침반임을 잊지 않고 사역에 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미연 사모 (주님의교회)

예배와 중보기도를 핵심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저는 무엇보다 교회를 항공모함으로 비유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를 흔히 노아의 방주에 비유하곤 하지요. 그런데 항공모함이라니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영적 전투를 하는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멋지게 표현한 말이 아닙니까! 둘째 날 저녁에는 열 분의 새로운교회 장로님들이 격려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 눈에는 그분들이 고역자들과 함께 최전선에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장군들로 보였습니다. 어찌나 마음이 뭉클하고, 또 든든하던지요.

석선녀 사모 (은일감리교회)

뉴젠헨 예배의 각 파트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이 아이들을 예배 전 맞이하며 기도해 주는 모습들이 크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저렇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구나 하며 메마른 가슴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결단한 마음들이 목회에 잘 적용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서지현 사모 (웨이처치, 러브더월드)

올해 아프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한 홍 목사님과 새로운교회 덕분에 저와 저희 가정은 외롭지 않았고, 서로 더욱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베틀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인생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임재를 받을 수도 없는 죄인에게 크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작은 자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 간증

정승희 사모 (제주서귀포강변교회)

25년 목회자 컨퍼런스는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고민들과 미안함? 잊고 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느끼고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6년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순간이나 힘든 일이 생길 때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받은 은혜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장해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의 약속을 꼭 지키며 목사님과 자녀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주며 늘 기도하는 사모가 되겠습니다.

임은경 사모 (세종늘푸른교회)

한 홍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떨기나무 앞 모세의 모습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함이 적어졌고 내 열심만이 앞서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불들어 봅니다. 강정현 사모님의 사모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막혔던 눈물샘이 터져서 눈물을 닦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를 사모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모의 특권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무거웠던 짐을 한가득 가지고 간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은 그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날아갈 듯 가벼운 몸과 마음입니다.

최은혜 사모 (인천영광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 리더들이 바로 서고 교회 안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며 부흥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한 홍 목사님의 말씀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오아시스를 만나 목마름이 해갈되듯 시원해졌습니다. 기도회 가운데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움을 갖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 부끄럽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 같으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저의 모습을 눈물로 회개하며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셨는데 하물며 나를 힘들게 한다며 성도들을 미워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마주하게 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주셨습니다. 목회자와 사모의 사랑은 성도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며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매너리즘에 빠진 저에게 해답을 주는 기도시간이었습니다.



2025.
12

에버그린스쿨 / 야유회 간증

03

1. 고경효 성도 (S강남공동체)
2. 이동형 성도 (우면공동체)
3. 공길순 성도 (C강남공동체)
4. 김성은D 성도 (강북공동체)



염려가 사라지고 활기찬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경효 성도 (S강남공동체)



젊은 날에는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고 남보다 앞서려는 것이 삶의 목표이자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중요하고 급한 일인 줄 알

면서도 마음 따로 행동 따로였습니다. 이제 세 월이 흘러 여러 삶의 고개를 넘어서 주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진정한 지혜와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시니어가 되면서 “노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순에서 젊은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등으로 생각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에버그린 공부모임을 알게 되어 많은 기대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에버그린 스쿨에 다니기 전에는 노년의 믿음 생활이 그동안 친밀했던 젊은 동역자들과는 거리가 생기고 외로운 과정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여러 해 전 에버그린에 출석하여 동년배와 믿음의 교제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고 활기찬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커피브레이크 공부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조원들과 나눌 때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발견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조별 말씀 나눔 전후로 목사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 풀이와 강해를 들을 때 희미했던 부분들이 더욱 명

확하게 다가와 각인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2학기 빌립보서 말씀 주제인 “빛처럼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돛대를 향해 달려가는 목적 있는 삶” 그리고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므로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생활”을 공부하며 주신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도전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읽는 성경이 때로는 의무감으로 인한 것 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이 과연 꿀송이 같이 달콤함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 또한 에버그린 스쿨의 말씀 공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믿는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이를 이웃에게 특별히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친구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충실히 준비하신 3주간의 특강들 “피크타임”, “총균쇠”, “실학_조선에 르네상스를 열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와 내용들로 애청하였습니다. 특강을 정해주신 담임목사님과 강의에 수고하신 세 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도 여전하게 빈틈없이 학기를 이끌어 주신 담당목사님께 감사드리며 감동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장로님들과 팀장님, 총무님 모든 리더십 그리고 섬기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에버그린 스쿨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말씀과 실학정신에서 새 길을 보다

이동형 성도 (우면공동체)



올해 에버그린 스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금 새로운 길을 비추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1학기에는 빌립보서 1장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며, 공동체 속에서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이어진 2학기에는 2장 12절부터 4장 23절까지 공부하며 “돛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的 자세를 새기게 되었습니다. 외모는 세월과 함께 쇠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고후 4:16)이 실감 나게 다가왔습니다.

교양강의에서 만난 베르나르 올리비에의 도보여행 이야기는 제 2의 인생을 향한 도전의 불씨를 심어 주었고, 『총균쇠』를 통해서는 인간의 문명 차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불평등하게 보이나, 주권자는 언제나 하나님의심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학박물관 탐방은 깊은 감명을 남겼습니다. 성리학의 교조화로 나라가 어지러웠던 조선 후기, 반계 유형원은 백성의 삶을 바로 세우려 했고, 성호 이익은

실천적 지식의 중요성을, 다산 정약용은 민생을 살피는 사랑의 정치와 학문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암 박지원과 초정 박제가는 낡은 제도를 비판하며 실용과 개혁을 꿈꾸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곧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질서의 회복”을 향한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귀향과 유배생활의 원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 기저가 있다는 데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실학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정조 때의 실학이 그 빛을 더하였더라면, 우리 한글조차 말살하려는 일제의 속박은 겪지 아니했을 거라는 추론입니다만,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고, 진정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버그린의 모든 여정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 사회와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낡은 제도와 마음을 change up 하라”는 실학자들의 외침 위에, 이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뜻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 를 이루기 위해 날마다 새로워지리라.”

앞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공길순 성도 (C강남공동체)



“아휴, 권사님! 여기 요 예요!”

“오늘 어디로 야유 회 가요?”

“세미원 두물머리로 가지요!”

담당 목사님의 인도

로 깊어가는 가을 이른 아침 화창한 날에 65세 이상의 5기 에버그린스쿨 학생들이 9월부터 6주 동안 수업을 마치고 기대와 흥분된 마음으로 화려한 외출을 하는 날입니다.

화사하고, 멋지게 차려입은 언니오빠들이 (어르신이라고 부르면 뭇시 싫어하심)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난 후 한 홍 목사님을 멘토로 두신 부목사님들의 수준 있는 주제강의를 들으며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로 수업에 임하였습니다.

언니오빠들의 학식은 수준급이어서 매주 주제강의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긴장하게 하셨는데 준비해 오신 목사님들의 강의 또한 학생들 수준에 맞게 최고의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 홍 목사님은 이걸 아셨을까요?

여러 주제로 발표를 하는 목사님들께 주제에 맞는 책을 선정해 주시고 미리 연구하고 발표를 하게 하신 후 에버그린에 꼭 맞는 탁월한 강의를 선정하여 스쿨에서

강의를 하도록 기획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품격 있고 수준 있는 강의는 스쿨의 걸작품이었습니다.

또 하나 스쿨의 자랑거리는 간식과 도시락입니다.

봉사자들의 친절함과 배려, 테이블 위에 세팅된 꽃과 맛있는 간식 그리고 커피와 차, 수업 마치고 먹는 맛있는 도시락은 오 성급 호텔에서나 받아볼 만한 경식 있는 최고의 대접이었습니다.

커피브레이크는 스쿨의 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비록 감옥생활 중이지만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하라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줍니다.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욕먹고 쫓겨 다니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커브 수업을 마치면서 바울이 살아낸 일생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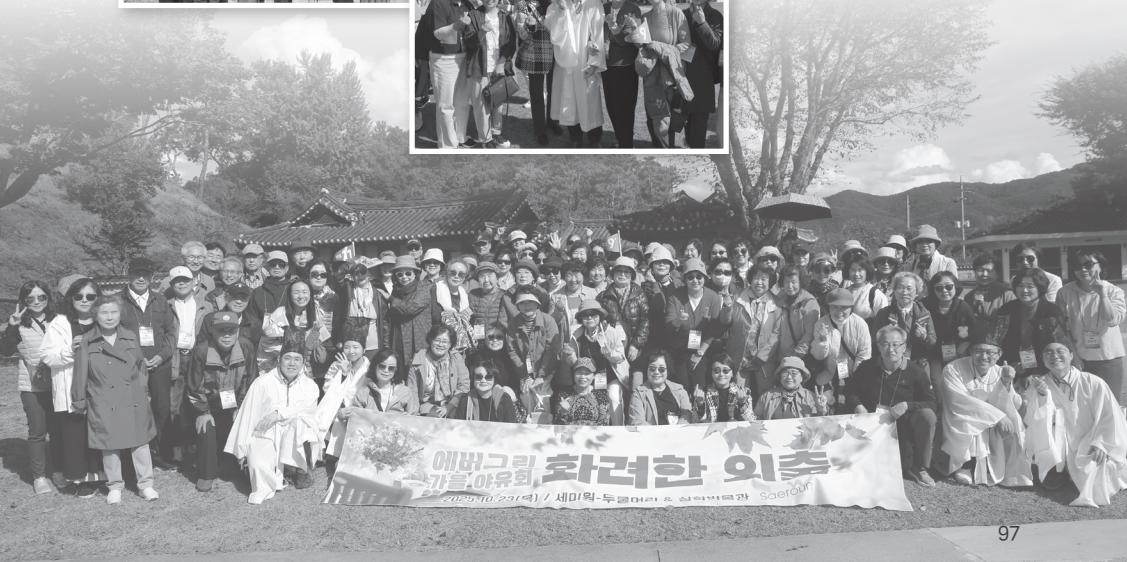
머리를 꽂하고 한 대 맞은 듯이 빌립보서가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김성은D 성도 (강북공동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됨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읽고 가끔 설교를

듣거나 ‘새롭게 하소서’ 같은 접하기 쉬운 것들을 듣고 있었는데 이번 빌립보서를 통해 머리를 꽂하고 한 대 맞은 듯이 새롭



2025.
12

마더와이즈 간증

04

- 
1. 이미경G 성도 (S강남공동체)
 2. 곽민성 성도 (N서초공동체)
 3. 김보경B 성도 (S서초공동체)
 4. 최금옥 성도 (강북공동체)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심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경G 성도 (S강남공동체)



매일의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지난 마더와이즈 ‘지혜’ 과정 가운데 받은 은혜와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있었기에 이번 마더와이즈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날의 묵상을 하고 말씀으로 충전하니 매일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고, 무슨 문제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변 지인들에게 나누던 습관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물어보게 되고 잠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갖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를 통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인생을 크게 멀리 볼 수 있는 통찰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심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6주차 나눔으로 솔로몬이 권면한, 부부가 즐겁게 살기 위해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주말부부로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던 남편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먹고 일상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매콤한 오징어볶음과 좋아하는 잡채를 저녁식사로 준비했습니다. 너무 맛있고 행복하다는 인증을 받고 마더와이즈 미션이었음을 얘기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더와이즈를 하는 동안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자율신경실조증으로 무기력하고 묵직하게 누르고 있던 어떤 놀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6S 중보기도의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로는 부족한 상황에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기도했는데, 투잡 파트타임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의 한 걸음일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마더와이즈를 마칠 때쯤, 저는 놀라운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15년 전 근무했던 친구의 사무실에서 기존 직원의 직무를 변경하고 사무직 직원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공고를 내지 않고 저에게 전화를 먼저 했다고.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비우신 건가요?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기도했을 때 그만두는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귀한 마더와이즈 사역을 통해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은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속 가장 큰 갈증과 고민을 풀어주셨습니다

곽민성 성도 (N서초공동체)



지난 학기 처음으로 참여한 마더와이즈 ‘지혜’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제가 겪고 있던 어려움에 대한 답을 발견하고 해결 받는 큰 은혜가 있었기에, 모든 과정을

전부 수료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번 학기에는 어떤 지혜를 주실지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행 과정을 소개하는 예배 광고시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이번 ‘동행’ 과정은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그 시간을 통과하는 지혜를 배우게 된다고 했는데 다양한 영적 전쟁과, 몸과 마음의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고독의 때는, 나와 더 깊이 대면하여 시간을 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시는 ‘때’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대기실에서 말씀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묵상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대해 대비케 하시고 그 시간들을 마주할 지혜와 힘을 주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주시는 말씀들이, 그때 고민하고 있는 삶의 상황과 너무나 맞아떨어져서 매주 놀랄의 연속이었습니다. 화요일 밤마다,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불들고 “여보! 우리가 기도한 이 문제에 대해, 마더와이즈 통해 이 말씀을 해주셨어!” 이야기하면 덩달아 남편도

놀라곤 했지요. 이후로 화요일 저녁이면 남편도 궁금한지 오자마자 “오늘 마더와이즈 잘했어?” 하며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생생한 아버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동행’ 과정을 통해 묵상한 인생의 겨울은, 춥고 혹독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삶의 마지막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아직 짧지만 제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모님께서 크리스천 요양원을 운영하게 되시면서, 솔로몬과 바울의 말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 와닿는 현장에서 ‘동행’ 과정 책 속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 같은 상태로 삶을 마무리하기에 욕심부릴 이유가 없다’는 구절을 실제로 생생히 목격합니다.

결국 가장 의미 있는 삶이란, 영혼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잠시 주춤히 갈망했던 비전의 길과 진정한 삶의 의미, 사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간구하기 시작했고,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며 지나온 저의 커리어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중에, 영혼을 위해 내게 주신 달란트로 더욱 혁신할 수 있는 분야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에 대해 한 줄기 빛과 같은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지난 학기와 같이 제 마음속 가장 큰 갈증과 고민을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지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용기, 말씀이 늘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좋은 가랑비가 되어준 마더와이즈 동행 과정

김보경B 성도 (S서초공동체)



이번 <마더와이즈 동행> 과정은 마더와이즈 자유, 지혜 과정을 할 때와는 사뭇 느낌이 달랐습니다. 자유, 지혜의 과정은 한창 일과 육아로 분주하고 피폐한 워킹맘에게 주는 위로와 침침서로 일상 속에 흙 들어왔다면 동행 과정은 다가올 미래를 예견하고 대비하라고 알려주는 예습용 참고서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그 나이가 아닌데, 공감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고 실제로 평소에도 어려운 “헛되고 헛되도록”의 전도서의 말씀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한 과씩 묵상 나눔을 하고 화요일 저녁마다 조원들과 6S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평소보다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뿐만 아니라 영적근육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그리 오래지 않은 몇몇 조원들의 행복하고 감사한 신앙생활에서 느껴지는 생기 넘치는 싱그러움은 피곤한 저녁시간에도 모임을 기다리게 하는 동력이었습니다. 또한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지’ 육아 선배맘으로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던 후배맘 조원들에게 더 마음이 갈 수 있다니 지난 세월이 참 감사했습니다.

마더와이즈 동행 과정의 후반부로 갈 즈음, <상속에 대한 준비>라는 부분이 문득 깜빡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나눔을 돌아켜보니

“well dying =잘 죽기”에 대해 언급했던 것, 아이들과 이야기하다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노화가 시작된다”를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우리 부부가 갑자기 사고로 동시에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찌지?”에 대한 상상과 대처를 남편과 함께 상의했습니다.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할 사람도 부부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물려받을 것도, 물려줄 것도 없다 생각한 우리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두 아들에게 나누어줄 물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두 아들에게 주는 게 현명할까 고민해보기도 했고 무엇보다 ‘삶의 가치’를 알려주어야겠다 생각하며 <믿음의 유산>에 뿌리를 둔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가정과 상상을 꼭 지금! 해봐야 하냐며 어이 없어했던 남편도 진지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엄마는 마더와이즈를 하려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아빠랑 잠을 자야 했지만 아이들은 묵상교재를 펼치고 있는 저를 보며 “엄마, 아빠를 위한 파더와이즈는 없어?”라고 물었고 일상의 잠시순간에 마더와이즈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저를 보고 남편은 “마더와이즈의 순기능이고만?!?”이라고 했습니다. 엄마와 아내로서 지혜로운 여성이 되기 위해 노력한 저의 모습이 가족구성원들에게 비교적 좋은 가랑비로 젓어들었을 거라 믿으며 감사합니다.

제 겨울이 끝나고 ‘새 봄’이 오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최금옥 성도 (강북공동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1년 9월 새로운교회를 알게 되고 지인을 따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제게는 정말 “새로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말씀이 쑥쑥 들어오고 교회에서의 양육프로그램으로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제게 주신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이사문제에 휩싸이게 되었고, 저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많은 동역자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지만 작년 봄에 멀리 떨어진 곳으로 주거지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저를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이사 후에도 저를 버리셨다는 원망과 범립받았다는 마음의 어려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 하나님 이야기로, 말씀 양육으로 바쁘게 지냈던 저는 갑자기 덩그러니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소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때를 그리워하며 누워 눈물만 흘리며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매주 교회를 향해 달려 나갈 힘을 주시고 온라인으로나마 마더와이즈를 하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동행(인생의 겨울에 만나는 하나님) 과정을 하며 지난 어려움의 시간들이 제게는 ‘겨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의

시간. 하나님과 마주 앉아 씨름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더와이즈를 매일 묵상할수록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주 어려서부터 이어오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계속되는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들려오던 “그 때가 좋았지”라는 속삭임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며 하나님께 더욱 시선을 고정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던 제 모습을 보며 제게 주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찬양을 부르지만 제 안에 참 기쁨이 마르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기도를 올렸습니다. 지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시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해주십니다.

제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동일하고 주일 아침마다 힘들다는 아이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교회로 달려갑니다. 때로는 찬양 중에 엉엉 울기도 하지만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누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서 자유해지는 순간 저는 제 겨울이 끝나고 ‘새 봄’이 오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저와 제 자녀를 통하여 더욱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로 오직 하나님 한분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
12

새로운대화스쿨 간증

05

- 
- A large group of people, mostly women, are seated at round tables in a conference room. They are all smiling and holding up white certificates or diplomas towards the camera. The room has white walls and a projector on a stand in the background. The overall atmosphere is celebratory.
1. 김종구 성도 (W강남공동체)
 2. 노승원 성도 (C강남공동체)
 3. 박종숙A 성도 (S강남공동체)
 4. 심언정 성도 (C강남공동체)

나는 아직도 성장 중

김종구 성도 (W강남공동체)



벌써 강산이 다섯 번
바뀌고 여섯 번을 향
해 세월은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잠시 눈
을 감았다 뜬 것 같은
데 벌써 내 나이 50
중반이라니… 세상
속에서 바쁘다는 평
계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세월에 그냥
나를 맡겨 버린 무책임한 삶은 아니었나 하
는 반성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8
년 전 이혼이라는 상처를 딛고 소중한 사람
을 만나 결혼을 하고 동생이 목회하는 시골
의 조그마한 교회를 떠나 지금의 새로운교회
에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양육 프로
그램인 ‘결혼교실’과 ‘새로운대화스쿨’ 등 새
로운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
혜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5형제 집안인 남자들 속에
서만 자라서 그런지 말을 예쁘게 할 줄 모릅
니다. 그래서 ‘새로운대화스쿨’을 신청하게 되
었고 무엇보다도 새롭게 결혼한 아내와 대화
를 잘해보고 싶었던 것이 강의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전에 ‘결혼교실’
도 마쳤겠다 이번에는 ‘새로운대화스쿨’을 통
해 대화의 기술까지 익힌다면 가정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 나의 자아상을 찾으라는 말
에 ‘대화스쿨’을 잘못 신청했나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번
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을 마치고 나서 첫

시간 ‘잘못 신청한 건가?’ 했던 제 생각이 너
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 하
나님과의 대화, 타인과의 관계, 상대방은 나
를 비추는 거울… 주옥같은 말씀들이 너무
나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세우
는 공감 대화법’에서 ‘말만 할 때의 의사 전
달력은 7%, 목소리 톤을 조절해서 말할 때
는 38%, 몸짓과 표정을 섞어서 말할 때의 전
달력은 55%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배우며,
손발을 열심히 움직이며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감정(마음)이 힘든가?’를 가지고 나
의 역할을 결정하여 적극적으로 경청하라는
말씀…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이란 것을 배
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새로운대화스쿨’을 통해 우리 부부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
화도 많아지고 아내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으
며, 결혼에 실패했던 과거를 발판 삼아 더 이
상 가정과 사회에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
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야 조금씩 조금씩 성
장 중입니다. ‘아내의 말·행동·모습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말 한 마디 행
동 하나 하나를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마음과
부부간에 1대 1 데이트도 자주 가지며 추억
도 많이 만들어 더욱 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목표도 생겼습니
다. 또한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남들의 말을
많이 경청하고 마음을 먼저 알아주며 나 자
신이 따뜻하고 평안한 거울이 되어 비추어지
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좋은 대화를 통해 성경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세워나가겠습니다

노승원 성도 (C강남공동체)



새로운교회에 좋은
양육프로그램이 많
아서 이번에는 새로
운대화스쿨 강의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저는 세상 사
람들과 대화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
지만, 새로운대화스쿨을 통하여 제가 그동
안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배운 대
로 실천해서 성경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온
전히 세워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라고 하신 말
씀을 통해 나 자신은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
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
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예민하지 않
으며, 나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강사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건강한 사람이라
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을 이
해하고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함으로
써 성령이 개입하실 수 있고 성령이 개입하
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를 수 있다는 강사
님 말씀에 비추어 나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
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자신이 없었습
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반복해서
행동해야 내가 비로소 성경적으로 건강한
대화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화할 때 표정, 몸짓, 목소리가 말보다
훨씬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표정, 목소리가 친절하지
않다면 그건 좋은 대화가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저도 집에서 남편과 자녀에게 그런 적
이 많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밖에서
는 안 그러면 집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
족한테 공감하는 대화, 존중하는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고, 배운 대로
노력해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 좋은 방향
으로 나아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모든 대화를 하기 전에 누구와 감정이 힘든지
먼저 가려내고 내 마음이 힘들 때는 내가
말할 차례이고 상대방이 힘들 때는 내가
들을 차례라고 하신 말씀, 또 상대방이 힘들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알
아주고 들어만 주라고 하신 말씀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실 자녀가 힘들 때 들어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정말 잘해서 나름 좋은
엄마, 현명한 엄마라고 생각했었는데 문
제 해결까지도 해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들어주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부부간, 부모자식 간에
도 서로 시간을 들여서 일대일 데이트를 통
해 즐거운 대화를 저축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 더욱 공감하고 존중하
면서 성경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온전히 세
워나갈 수 있도록 배운 말씀을 기억하여 살
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천국을 만드는 사랑의 언어

박종숙A 성도 (S강남공동체)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을 하는 모습은 아름답게 보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데 저의 말투는 비판

적입니다.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론 직설적입니다. ‘대화스쿨’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다고 해서 너무 궁금했고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나 자신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기를 소망하며 수업에 임했습니다.

강사님께서 ‘우리의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제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이야기하고 함께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고 이해해 주며 사랑으로 대화한다면 상처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언어는 7%밖에 안 되고 그 외의 목소리의 톤이나 표정, 몸짓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뿐 아니라 몸으로도 말하고 있다고 하니 언어뿐 아니라 몸가짐도 중요하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넷째 시간에는 상대가 말을 할 때 공감해 주라고 하시면서 실습을 했는데, 해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사

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보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무엇인가 해결을 해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고 그저 공감해 주고 문제는 본인이 해결하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보니 대화의 기술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언어 습관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이해하며 대화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과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잘못했다고 비난하거나 핀잔을 주었을 텐데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고생했어, 수고했어” 공감해 주고 격려해 주니 남편이 이상한 듯 쳐다보면서도 좋아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웃음이 많아지고 이해를하게 되니 화 낼 일도 없었습니다. 마음에 화가 없고 즐겁고 평안하니 이것이 은혜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물론 바로 또 옛날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차’ 하며 다시 마음을 간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묵상하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보다는 공감하는 말, 축복의 말을 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적과 같은 사랑의 언어로 대화를 한다면 바로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요?

나의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언정 성도 (C강남공동체)



대화스쿨을 신청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간극 때문에, 두 세계를 오가는 듯한 혼란을 자주 느꼈기 때문

입니다. 사회적 대화는 익숙했지만 복음이나 신앙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면 말이 막히고, 공동체 안에서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결국 “은혜가 있었습니다”라는 말로 급히 마무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대화스쿨을 찾았습니다.

수업에서 받은 은혜는 기대보다 훨씬 컸습니다. 자아상 강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마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만들어낸 여러 겹의 사회적 기준 속에서 나 자신을 쉽게 비난하며, 따뜻하게 바라보는 법을 잊고 지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대화를 설득의 기술이나 협상의 도구처럼 사용해왔다는 사실도 인지하게 되었고, 문제는 말

이 아니라 내 마음과 자아상을 바로 보지 못한 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울대상’에 대한 배움과 나눔은 한층 더 큰 통찰을 주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비춰줄 거울이 반드시 필요하며,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곧 나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자기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나 역시 누군가에게 평생 거울이 될 수 있고, 되고 있다는 경각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든든하게 서 있기만 해도 선교가 된다”는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아가 회복되고 변화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3주 차에 조별로 기도한 것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은 큰 위로와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시선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대화를 통해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하고 계시는 일을 함께 바라보는 동행자로 살 수 있기를! 나의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
12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 소개:

06

세진회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소개

세진회를 소개합니다!

세진회를 소개합니다!

세진회는 1968년 7월 7일에 발족하여, 소년원·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안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복을 돋는 사역을 꾸준히 이어온 기관입니다. 법무부 인가를 받은 최초의 사단법인으로, 수용자 교화와 복지, 그 가족을 향한 돌봄을 전문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진(世進)'이라는 이름은 **갇힌 형제들이 변화되어 세상을 향해 새롭게 나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세진회는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로 이끄신다는 확신으로 오늘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LET IT SHINE! : 세진회의 사명

"어둠과 혼돈의 삶에 생명의 빛을 비추다." 세진회의 사명은 수용자와 가족, 보호 청소년들이 변화되어 세상을 향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돋는 것입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선 회복,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출발, 그리고 사회 가운데 건강한 정착을 이루도록 돋는 사역입니다.

세진회의 핵심 목적

세진회는 다음 네 가지 핵심 목적을 중심으로 사역을 전개합니다.

- 재범 방지:** 반복되는 범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 범죄 대물림 근절:** 수용자 자녀·보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돋습니다.
-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 교회·지역사회와 연대하여 회복 공동체를 세웁니다.
- 회복적 정의 구현:**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고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길을 연구하고 실천합니다.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소개: 세진회

세진회의 비전

세진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용자 교정·교화, 수용자 가정 지원, 위기청소년 돌봄, 수용자 자녀 캠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범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달려왔습니다.

현재 재범률 64%가 넘는 시대 속에서, 세진회는 교정·교화의 새로운 방향을 연구하며 더 아름다운 사역을 창조하고자 공동체 전체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역의 실제 모습

세진회는 위기상담, 교정시설 예배와 교회 프로그램, 수용자 가정 돌봄, 자녀 캠프와 멘토링 등 다층적인 사역을 통해 수용자와 가족이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돋고 있습니다.

사역 전반에는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회복을 경험하게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흐르고 있습니다.

세진회의 기도

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꿈, 큰 꿈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꿈이 있습니다.

출발선이 다른 아이들을 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저들과 동행하는 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꿈은 없습니다. 범죄로 인해 잃어버린 삶 깨어진 가정 홀로 울고 있는 수용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한 목 적대로 쓰임 받아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꿈은 없습니다. 수용자 자녀, 수용자 가족이라는 주홍글씨로 인해 숨죽여 살아가는 저들이 환하게 웃으며 가슴 활짝 펴고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는 함 꿈이 있습니다.

지난 50년 하나님이 주신 한 꿈을 불들고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많은 분들의 동역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 주시는 한 꿈으로 인해 가슴 뛰며, 그 사랑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땅 끝" 수용자와 그 가족들, 출발선이 다른 위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길을 가려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진회의 정신

세진회는 수용자와 그 가족, 보호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마음 깊이 품습니다.

상처와 혼돈 속에서 길을 잊은 이들이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 영적 고아와 같았으나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풀어주셨듯,

세진회는 그 사랑의 흔적을 따라 가장 낮은 자리의 이들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주인이 되시고, 세진회를 그 통로로 사용하셔서 무너진 삶 위에 다시 빛이 비치고, 깨어진 가정과 마음 위에 새 희망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메모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성탄축하 예배
일시: 12월 25일(목) 오전 8시, 오전 10시, 오후 12시 30분
장소: 본당

송구영신 예배
일시: 12월 31일(수) 오후 6시, 오후 8시 30분, 오후 11시
장소: 본당

신년새벽기도회
일시: 1월 2일(금)-10(토) 오전 6시
장소: 본당

Saeroun
church

Wednesday Prayer Worship

12월 수요기도예배 나눔과 구제

12/3 이성훈 목사	12/10 조은영 목사
12/17 이신영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12/24 이아론 목사
12/31 이상화 목사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문의 조은영 목사 choeunyoung@saeroun.net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6 삼준빌딩 3층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